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대강절(Advent)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
망 가운데 신앙을 붙드는 대강절의 시작주일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분을 발자취
를 온전히 따르길 소원합니다.

3. 성도님들께 감사

다시 한번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 오찬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마
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4. 카톡 채널 안내

외부에서 저희 교회소식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카톡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가입하셔서 교회소식등을 매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
리겠습니다.

지난 주 (11/20)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률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동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US\$2,848.93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기도 Prayer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2:25-38

말씀선포 Sermon

기다림의 약속

*찬양 Praise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함께

다함께

이우선

다함께

다함께

유형선

다함께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12월 4일

윤원신

12월 11일

서경열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1월부터 시작합니다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들...

“우리 사회는 인간의 유한성과 죽을 운명을 잊게 만드는 거대한 음모 집단이 되었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한다. 그리고 점점 진실에 무관심해진다.”

기독교 변증 가이자 문화 비평가인 오즈 기니스의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오락 공화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형국 목사는 자신의 책 <교회 안의 거짓말>에서 “우리는 진실하고 진지한 질문을 방해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삶의 가치에 대해,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다양한 오락으로 채워 나가는 데에 온 힘을 쏟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입니다. 스포츠, 미디어, 영화, 쇼핑, 건강, 외모 꾸미기, 술, 게임, 캠핑 등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러한 것들이 삶의 기쁨이자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의 상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전 1:14)과 같다고 강조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 4:18) 고도 말합니다. 진짜가 있다는 것이고,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은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삶인가? 더 나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죽음 이후에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미디어에 노출된 저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는 끊은 지 오래되었고, 세상 미디어도 필요한 것 외에는 잘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말씀 묵상과 기도와 독서 등 저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삶이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상담과 성경공부로 일주일이 정신없이 흘러가지만 바쁠수록 보다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려 노력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옵션이 아니길 바랍니다. 신앙만 있고 생활은 없는 수박 겉핥기식 신앙은 이제 청산합시다. 올해도 어느새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지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